

“죄사함”에 대한 고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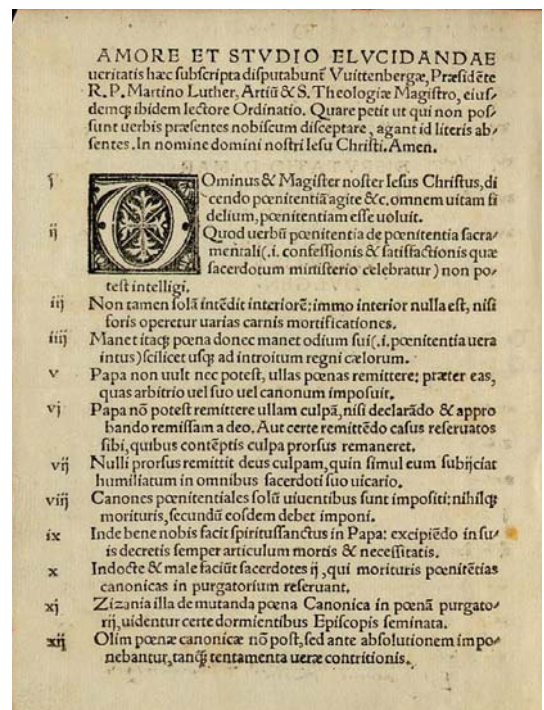
김현수 (독립개신교회신학교 교수)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2017년에 우리는 수도사 루터를 개혁자 루터로 바꾼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루터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유럽 사회 전체가 바뀌었는데 그 추동력이 무엇이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개혁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사회적인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서는 지난 500년 동안 계속 논의되어 왔다.

여러 관점들이 있지만 루터의 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은 루터가 죄와 씨름하였다는 사실이고, 또한 죄와 씨름하면서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였다는 사실이다. 죄 사함의 복음을 발견한 그는, 면벌부로 ‘죄사함’을 가볍게 여긴 로마교회에 대하여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루터의 95개조에서는 주로 ‘죄 사함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면벌부를 비판한다. 몇 조문을 읽어 보자.

우리의 주님이자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신자들의 생애 전체가 참회하는 삶이 되기를 요구하셨다. (1조)
연보함의 바닥에 돈이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에서 빠져 나온다고 설교하는 것에는

아무런 신적인 권위가 없다. (27조)
어떤 교회들에서 면벌부들이 설교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설교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교황의 원수들이다. (53조)



1517년 뉘른베르크에서 출판된 95개조

죄 사함은 평생 지속되어야 할 일인데 면벌부를 구입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하였다. 루터의 개혁은 죄 사함의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6문에서는 ‘죄 사함’을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신 사실을 중심으로 고백한다.

56문: “죄 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는 앞서 4-6주일에서 고백하였다. 사람이 짓는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업위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11문)한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짓값을 다 치러 주셨다(15-18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신 결과는 죄인의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데에 그치지 않고,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면벌부 판매상을 그린 목판화 (1521년)

않게” 하시는 것으로까지 연결된다.

나의 모든 죄와 나의 죄악된 본성

죄 사함의 내용으로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죄악된 본성,’ 이 두 가지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은 자기의 죄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 누리는 복이다. 56문에서는 ‘나’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한다.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내가)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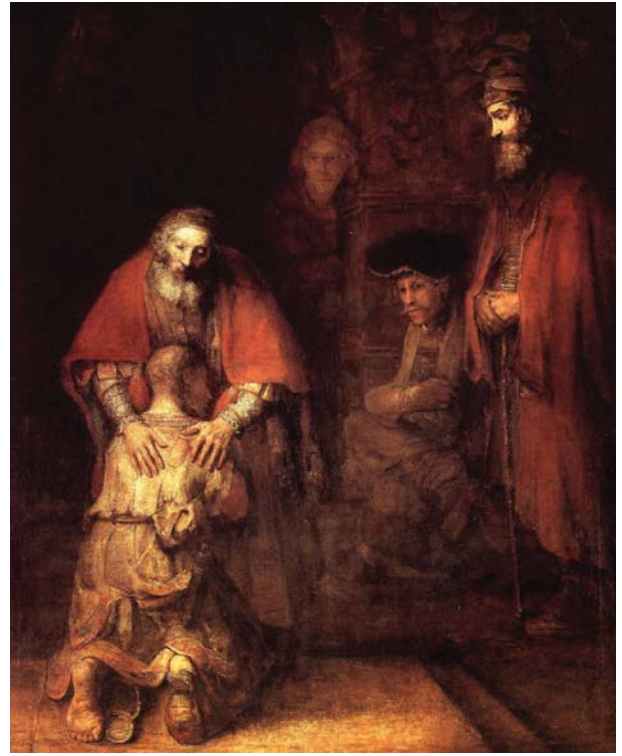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한다. 그리스도께서 보혈로써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성도들과 거룩한 생활을 힘쓴다. 부활의 몸을 입기 전에는 우리가 완전한 위치에 이를 수 없다. 원칙상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났지만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있고, 따라서 우리는 일평생 우리 자신의 죄악된 본성과 싸워야 한다. 선한 계명이 있지만 그 계명 때문에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비참함이다(롬 7:7-13).

‘사죄의 선포’와 ‘죄와 싸우는 일’은 함께 간다. 사죄만을 이야기하고 죄와 싸우는 것을 가르치지 않거나, 사죄의 선포가 없이 죄와의 투쟁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서 나의 죄악된 본성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나를 의로 여기시지만(고후 5:21), 동시에 나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일평생 내 죄악된 본성과 더불어 싸우고 성신을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 .

기억하지 않고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심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뿐 아니라 ‘나의 죄악된 본성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보시고 그 안에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뿐 아니라 아직 내가 더불어 싸우고 있는 나의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시간의 순서로 보자면 모순이 되는 말이다. 기억이라는 말은 과거의 일을 가리키는데, 내가 아직 살아야 할 기간이 남아 있고 또한 죄악된 본성과 싸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모순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간을 넘어서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들에 대하여서도 ‘기억’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앞으로의 죄에 대해서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



돌아온 탕자 (렘브란트, 1665)

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소망과 힘을 주는 말씀이다. 나는 넘어지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 주셔서 장래의 심판에서 내가 정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신다. 나로서는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러한 비참한 데서 나를 건지시는 것이다. 이렇게 확정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생활을 힘쓸 수 있다. 주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방종한 생활을 하도록 만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은 오히려 더욱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싸워 나가게 될 뿐이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이 표현을 우리는 조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마치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와 죄악된 본성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뜻은 아니다. 마치 ‘삭제’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의 자료가 삭제되듯이,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억

의 창고에서 삭제하신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이러한 식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에서도 전과 기록이 다 사라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셈이 될 것이다. 말하자면 마지막 날에 신자에 대한 심판은 없는 셈이 되고, 단지 불신자에 대한 심판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식의 사변을 가르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계 20:12) 받는다. 우리는 모두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롬 14:10-12. 참조. 고후 5:10).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면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이것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난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그들에 대한 ‘심판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 즉 그리스도의 만측에 하심을 보시고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사죄와 의롭다 함을 선언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는 또한 이 땅에서부터 부족하나마 의를 행하며 살게 될 것이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의에 대해서 상을 주지 않고 지나치지는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대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그들이 형제라는 이유로 작은 선행을 한 자들에게 거기에 따라 상을 주실 것이다(마 25:40).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

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롬 2:7-8) 하실 것이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과의 싸움을 좀 더 깨어서 수행하도록 만든다. 우리는 이와 같이 근신하면서 사는 것이지, 사변적인 신학 체계 속에 안주하면서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나의 모든 행위에는 죄와 결핍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 만일 내가 행한 것을 주님 앞에 내놓는다면 나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당장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마 7:21-23). 우리의 행한 것을 내놓는다면 정죄에 합당할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 우리 자신으로서 심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

‘교회 - 죄 사함 - 육신의 부활’의 순서

사도신경에서 죄 사함의 고백은 교회에 대한 고백에 이어서 나온다. ‘교회 - 죄 사함 - 육신의 부활’의 순서로 고백하는 것이다. 죄 사함의 고백이 교회에 대한 고백 다음에 나오는 것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얻기 때문이다. 교회가 죄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하심에 대하여 선포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죄 사함의 소식을 듣는 일도 죄 사함을 맛보는 일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는 먼저 교회를 고백하고 이어서 죄 사함을 이야기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 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곳이다.

I believe in the Forgiveness of Sins

죄 사함 다음에 나오는 고백은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이다. 즉 죄 사함 다음의 고백은 이 세상 이후의 삶에 대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죄 사함은 신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 된다. 이처럼 죄 사함은 세례를 받고 처음 교회에 들어올 때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56문에서는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요약하였다.

우리를 시험하는 악한 자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죄의 문제는 교회에 들어올 때에 해결되었으니까 이제는 자신의 행복도 조금 추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큰일을 하면서 더불어 자신의 이름도 조금 내 보라고 권한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42문에서는 신자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에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신자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신자가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은 착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다. 교회는 죄 사함의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여야 한다.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면서 살아야 한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는 역사적으로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교회에 대한 고백에 이어 죄 사함과 육신의 부활의 순서로 신앙을 고백하였다. 존 칼빈은 그 순서를 이렇게 아름답게 설명하였다.

사도신경에서는 적절하게도

죄 사함이 교회를 고백한 다음에 나온다.

우리가 선지서에서 읽는 것처럼,

오직 교회에 속한 백성과 가족만이

이것을 얻는다 (사 33:14-24).

따라서 하늘의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일이

먼저 와야 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한자리를 차지하여서

그리로 오는 모든 사람의 불법을 사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그리하는 것처럼,

우리는 일평생 죄의 흔적들을

우리 주위에 짊어지고 살고 있으므로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끊임없는 은혜가

우리를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순간도 교회에 머물 수 없을 것이다.¹

1. 칼빈, 『기독교강요』, 4:1:20, 21.



글 | 김현수

총신대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기독교학문연구회 간사와 총무를 역임하였다. 이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네덜란드 아펠도른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대전성교회에서 목회하였다(1997-2010). 2010년 이후에는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교의학과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권, 『시편과 그리스도의 고난』, 『시편과 그리스도의 영광』 등이 있고, 역서로는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 등이 있다.